

## CONTENTS

|        |       |
|--------|-------|
| 메트     | 1     |
| 가이드 I  | 2   3 |
| 가이드 II | 4   5 |
| 스초시    | 6     |
| 스토리    | 7     |
| 재 권속소개 | 8   9 |



010년 우리꽃은 10 | 11



12 | 15



16



## 완성형의 화단을 위한 규격의 변화

### 빠른 효과, 편리한 시공 - 식생매트

초화류 시공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완성형의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작은 포트규격(3치, 4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넷 지면을 통해서 수년전부터 제언한바 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용기규격을 식물의 특성에 맞추어서 완성형의 큰 사이즈인 8치, 10치 그 이상으로 규격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후에도 조금씩 규격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 3년전 현대건설의 온평뉴타운 아파트식재공사에 초화류는 작은 규격으로 설계되어져 있었다. 이미 설계되어진 것을 모두 바꿀 수는 없으므로 준공을 앞두고 핵심적인 곳에

에 피는 고급 일년생 초화류를 혼식해서 새로운 개념의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었다. 봄 도로화단에 새로운 경관조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 혼합형 식생매트이다.

두번째는 고급품종군 식생매트, 우리꽃에서 그 동안 선보인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고급품종들을 식생매트로 생산하여 도로변, 행사장 등 어디에서나 군식, 혼합식재 등을 통해서 빠른 효과를 얻을 때 구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

세번째는 조기 피복용 식생매트, 하천, 도로법면 등 정비 공사에 따른 유실을 막고 빠른 피복, 생태복원용으로



봄꽃용 혼합식생매트



고급종 식생매트



속근사루비어 식생매트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큰 규격으로 설계면적에서 미리 '우리꽃'에서 계약제배를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설계회사들을 통해서 큰 규격으로 설계가 되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직도 유통이 일반적으로 작은 규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제배의 형태가 아니라면 생산단계에서 미리 큰 규격을 준비해놓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점에서 볼 때 또 다른 완성형의 규격인 식생매트는 수년전부터 일부 현장에 적용되어왔고 그 효과면에서 인정되면서 앞으로 활발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식생매트도 편리한 시공, 완성형의 빠른 효과 외에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의 제품군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우리꽃'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식생매트를 출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기와 장소에 맞는 다양한 식생매트 제품을 준비해왔다. 그 제품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봄꽃용 혼합식생매트, 봄 일찍 가로화단에는 랜지 일색이고 특별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 세종로에 선보인 플립, 꽃잔디, 봄

마지막으로 옥상용 세덤매트, 일반적으로 세덤이라고 하면 모두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순히 길에 드러나는 형태만 보고 판단하여 옥상녹화에 적용하다보니 제대로 된 효과를 못보는 것이 다반사였다.

세덤은 형태적으로도 포복형, 반직립형, 직립형이 있고 5-6월에 꽃이 피고 여름에 녹아내리면서 거의 존재만 유지하다가 가을로 오면서 다시 회복하며 겨울철을 유지하는 중. 봄부터 가을 내내 좋은 형태를 유지하지만 겨울에 얼어 없어지는 중 등등.. 세덤은 형태적, 생태적으로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모르고 품종을 적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다. 우리꽃에서 선보이는 세덤매트는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세덤을 혼합하여 봄부터 겨울까지 4개월 내내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속근종 뿐만아니라 새로운 일년생 고급 초화류의 식생매트도 선보일 것이다.

이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식생매트는 앞으로 화분형의 규격과 더불어 초화류(지피식물)의 편리한 시공, 빠른 효과라는 장점을 가지고 빠르게 조성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수직정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벽화수** 2010년 현장을 찾아서!

**남산1호터널**



▲2009년 1차시공      ▲2009년 2차시공      ▲2009년 2차시공

2009년 늦가을 남산의 터널 입구 높은 콘크리트 벽면에 첫 시공되었고 첫 시공이 이루어지고 가을을 난 뒤 아름다운 꽃과 푸르른 잎이 벽면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어서 2010년 4월 나머지 한남동 구간도 벽화수로 꾸며졌다. 남산1호터널 벽면은 계절별로 아름답게 변화면서 수직정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강북재활용센터**

강북재활용센터는 벽화수로 건물전체를 디자인하여 완전 피복한 첫 사례가 되었다. 여러가지 식물이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어우러져 보여지는 경관은 그 자체가 새로운 개념의 수직정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시공전      ▲시공후

**농업진흥청 원예특작과**



건물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을 벽화수를 이용하여 시공한 사례. 담장이 단순히 차폐의 개념을 넘어서 꽃과 푸르름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중랑나들이공원**



2010년 개장한 중랑나들이공원의 관리사무소 건물을 벽화수로 단장하였다. 건물을 푸르게 휘감은 벽화수는 관리사무소를 공원의 친자연적인 이미지와 잘 어울리게 하였다.

**송파구, 세종로 중앙분리대**

부천 원미구 무지개고개교 중앙분리대를 통해서 중앙분리대 녹화에 벽화수가 적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심의 구조물 녹화면이란 점에서도 좋은 인식이 되어 송파구와 세종로의 중앙분리대에 각각 벽화수를 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세종로      ▲송파구

**중랑구 SH아파트 옹벽**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인도와 접해있는 아파트 옹벽에 벽화수를 시공. 늦가을에 시공되었고 삭막한 옹벽은 내년 봄부터 더욱더 화사한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공현장      ▲시공후

**도로공사 이천지사**

7월초에 도로공사 이천지사 사옥임구 건물 벽면일부, 양쪽으로 세로로 벽화수를 설치하였다. 사진으로 볼경태로 디자인되어 식물상호간의 질감의 대비와 곡선미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수직정원이 탄생되었다.



▲시공현장      ▲시공후

**서초 한남IC**

한남IC 주변 차량의 시선이 잘 보이는 인도와 맞붙은 옹벽에 벽화수를 설치하였다. 어두운 느낌의 옹벽은 바로 푸르른 정원으로 바뀌면서 밝은 느낌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변신하였다.



▲시공전      ▲시공후

**우리꽃 본사**

우리꽃 이천본사의 정원 리모델링의 하나로 시공된 컨테이너 수직정원과 계단 수직정원은 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수직정원의 경우 여름에 내부의 온도를 현저히 낮춰줌으로써 에너지절감의 효과도 있다.



▲계단 수직정원      ▲컨테이너 수직정원

**LH공사 녹색기술홍보관**

자곡동에 개관한 LH공사 녹색기술홍보관 벽면에 벽화수를 설치. 타사와 비교사공 되었고 늦가을인 11월에 설치하여 내년에 좋은 경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측:벽화수, 좌측: 타사)



▲자곡동 LH공사



## 식생매트를 이용한 청계천 물길 조망공사

청계천은 2005년 9월, 그동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덮여 있다가 47년 만에 다시 복원되었다. 예전에 청계천은 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사대문안)에서 유일한 물길이었다. 봄과 가을, 겨울은 건천으로 있다가 비가 많은 여름이 되어야 비로소 물이 흘렀다. 복원된 후로도 청계천은 연중 20회 이상 범람한다. 한 번이라도 청계천을 가보신 분이라면 청계천 양쪽에 담을 쌓아 올려 물길이 시작하는 청계광장에서 중랑천이 만나는 곳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름철 혹은 비가 많은 날을 대비해 수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청계천의 식물들은 여기에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강한 물살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뿌리의 발달이 좋아야 하고 년 20회 이상 물에 잠기므로 물에 잠겨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품종이어야 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수변 식물들이 갈대와 물억새, 갯비름류로 채워졌다. 처음에는 더 다양한 수종이 있었겠지만 살아 남은 수종은 위에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황토 포장이된 산책로와 물길 사이는 1~3m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억새이다. 식물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지만 물억새의 키가 너무 키 여름 이후의 경우 산책로에서 물길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일부 구간의 물억새를 걷어내고 벌개미취, 원주리, 비비추 등의 꽃들이 다시 심겨진 구간이 있지만 물살에 쓸리고 물에 잠겨 생육이 좋지 않았다. 특히 주로 꽃이 피는 여름철에는 범람이 잦으므로 거의 꽃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꽃에 의뢰가 들어 왔을 때의 요구 사항은 꽃 보다는 생육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품종과 키가 낮아 산책로에서 물길이 보일 수 있는 식물이었다. 우리꽃이 제안한 식물은 산새풀, 그령, 홍피, 종새풀 등의 그라스류였다. 홍피의 경우 잎이 연중 빨간색으로 물드는 종으로 꽃이 잘 보이지 않는 그라스의 특성상 꽃을 대신하는 의미를 갖는다. 종새풀의 경우 대부분의 식물들이 푸름을 잃어 버리는 11월 까지 새파랗게 잎을 유지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



▲물억새 등이 심겨진 시공전 모습



▲기존 식물들을 걷어내는 모습



▲뿌리가 더 튼튼하게 바닥을 잡을 수 있도록 철망을 설치

에서도 생육이 왕성하다는 것이다. 또 전 품목을 매트형식으로 만들어 빠른 시공과 더불어 초기에 빠른 피복 효과를 보일 수 있게 조성했다. 보통로 바로 옆이라 식물이 백백하게 자라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넓혀 생육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생매트는 우리꽃의 다양한 식물종의 장점을 매트에도 그대로 반영 하였다. 일반적으로 수크령이나 억새, 갈대, 맥문동 같이 단일 넓은 면적용 식물이 대부분인 매트와 달리 꼬리풀, 후박스, 숙근코스보스등의 신재품과 꽃잔디, 툴립, 일년생들을 혼성 식재 함으로써 이른봄 꽃을 피워 줄수 있는 기능의 매트 까지 다양하게 생산한다. 이번의 경우 60일전부터 준비를 한 품종들이며 이런 경우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더 단단한 매트를 만들 수 있었다.

시공시 9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이 20~30미터씩 진행 되었고 청계2가부터 중랑천과 만나는 마장동까지 청계천 전구간에 걸쳐 작업이 진행 되었다. 제일 큰 문제는 뿌리가 활착하기 전에 비가 내려 범람 할 경우 식재한 매트가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청계천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서울 시내의 빗물이 한꺼번에 모이므로 순간적으로 물량이 늘어 유속이 빠르다. 식물의 특성상 뿌리가 완전히 활착 되었을 때에는 물에 잠겨도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는 식물들이며 뿌리가 튼튼해 물에 떠내려 가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공사시기를 조정하였는데 여름부터 진행할 것을 늦춰 범람이 없는 초가을에 시공해 가을, 겨울, 봄을 지나게해 뿌리가 내릴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바닥에 코팅된 철망을 설치하여 뿌리가 더 튼튼하게 바닥을 잡을 수 있게 하였다.

식물들은 대부분의 키가 50cm 미만으로 사람이 서서 물길이 바로 보이는 식물들로 범람시 물에 강하고 회복이 빠른 뿐만 아니라 평상시 건조에도 강한 품종 들이다. 보통 수변의 경우 물기가 많은 경우이나 이곳을 물의 수위가 낮고 면적이 좁아 건조한 지역이다. 이런 까다로운 경우에는 식물의 활용도가 높은 그라스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 많이 쓰였던 억새, 갈대류 외에도 요즘 다양한 품종 들이 많이 나와 현장에 적용할때에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품종이 많이 있다.

우리꽃이 작업한 구간은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이 더 자연스러운 청계천을 느낄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란다.



▲다양한 그라스류의 식생매트로 시공완료 후 모습



▲시공이 빠르고 편리한 식생매트 시공 모습



▲시공된 종새풀 식생매트. 종새풀의 경우 대부분의 식물들이 푸름을 잃어 버리는 11월까지 새파랗게 잎을 유지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생육이 왕성하다.



원추리는 영명으로 Daylily라고 부르는데 하루 동안만 꽃을 피운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다. 한국 원종으로는 예기원추리, 각시원추리, 왕원추리 등이 있으며 원예종으로 개량된 품종으로는 수만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많이 쓰여지는 품종이다.

흔히 개량종으로는 스텔라원추리가 많이 쓰여왔는데 '우리꽃'에서는 그 외에도 20여 가지의 다양한 색상의 개량원추리가 있다. 원추리는 야행성 개화를 하는데 늦은 오후에 피었다 다음날 오전 햇빛이 강해지면 점차 오그라드는 특성이 있는데 토종원추리들은 시기가 여름에 집중 되어 있어 오전

## 꽃과 잎의 무늬가 좋은 무늬꽃창포

▶수변지, 일반지 모두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무늬꽃창포는 꽃이 아름답고 몸체의 무늬가 같이 좋은 품종이다. 일반적으로 꽃창포는 5~6월 꽃이 피는 종으로 양지를 좋아 하고 수변지나 물의 깊이가 5cm이하의 낮은 저습지에서 생육이 양호하다. 일반지에서든 생육은 양호하다. 꽃이 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 가는 시기에 피기 때문에 단독식재보다는 혼합식재를 하거나 대면적 식재가 적당하다.

있는 꽃창포류 대부분의 품종이 봄부터 가을까지 강건해 웬만한 비바람에는 쓰러지지 않고 가을까지 푸른빛을 유지한다. 또 포트로 재배된 경우에는 연중 어느때에 식재해도 좋지만 분얼로 식재를 할 경우 꽃대를 올리는 시기는 이식하는것이 좋지 않으므로 꽃을 볼 자리에 늦여름에서

조경용사이 식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부 무늬꽃들은 현여름 혹은 음지에 있을때 무늬가 사라지거나 꽃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무늬꽃창포의 경우 봄에서 가을까지 무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일반 꽃창포에 비해 꽃의 크기나 형태가 떨어지지 않아 두가지 모두 만족할 만한 종이라 할 수 있다.

식재시에는 열식 및 포인트 식재가 좋다. 무늬꽃창포는 수변 및 일반지에서도 생육이 좋고 무늬가 좋아 길옆의 라인 식재 및 자연형 계류의 돌틈, 연못의 수변이 좋으며 혼합식재시 꽃과 잎의 무늬, 식물체의 형태가 좋아 포인트 식재를 해도 효과가 뛰어나다. 앞으로 수변, 일반지, 양지에서 활용가치가 뛰어난 소재이다. ☺

##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품종 개량원추리

▶ 음지, 수변의 화려한 고급종

에만 만개한 상태를 볼 수 있다. 조경 현장의 식재시 나무 그늘의 가장자리나 오후에는 별이 들지 않는 건물의 뒤편 등 반 그늘이 최적이고 토양도 습기가 있는 비옥한 것을 좋아하나 일반적인 토양에서도 생육이 나쁘지는 않다. 오후부터 밤새 피어 있어 가로등 주위에 식재 해도 좋다.

스텔라원추리를 제외하고는 군식·단독식재 보다는 혼합 식재에 많이 쓰는데 음지성 식물들이 화색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뒷라인 식재에 좋다. 물론 품종이 다양해서 선별을 통해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사계절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화색이 다른 것 등을 적절히 혼합 할때 군식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식물원의 품종원을 조성 할때, 수변의 꽃이 좋은 식물로 매우 유용하다.

우리의 조경현장은 고급스럽고 다양해지고 있다. 개량원추리로 앞으로 현장에서 고급조경의 필수소재로서 앞자리를 차지할 유망한 소재이다. ☺



중랑나들이공원은 (중랑나들이 숲) 면적 약 18만㎡으로 청소년문화촌, 가족캠핑존, 생태학습존, 숲체험존으로 구성되어 2009년 착공되어 2010년 개장한 공원이다. 이중 공원관리사무소 건물을 벽화수로 시공하였다. 우선 벽화수는 벽면에 타일처럼 붙어서 녹화하는 부드러운 스펀지형 식물기판으로 어떤 형태, 어떤 재질의 구조도 쉽게 시공하여 녹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이런 벽화수의 장점으로 어떤 형태의 시공도 가능하다.

사전에 보듯이 관리 사무소 건물은 2층으로 지어졌으며 면이 불규칙하며 굴곡이 많아 일반적으로도 시공이 쉽지 않은 건물이다. 더구나 신축 건물이라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외부에는 드라이버트(스티로폼 위에 시멘트를 바른 제품)로 되어있어 벽면녹화제품을 고정하기 쉽지 않은 현장이다. 기존에 벽화수들을 붙이기 위해서 가로로 만들던 틀을(스텐레스 각관으로 시공) 세로로 붙였다. 가로로 시공했음시 본 벽체와 각관 사이가 7.5CM의 드라이버트로 되어 있어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차후에 비틀림 현상이나 처짐을 고려한 것이다. 외장은 청문틀과 방부목으로 외장 마감한 곳을 제외하고 전면에서 시공되어졌다. 식물은 삼색조팝, 상록잔디페랭이, 백문둥 등 10종으로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이루어졌다. 잎의 색감이 좋은 삼색조팝, 황금조팝, 적엽질경이, 짙은 녹색의 푸르름이 좋은 백문둥, 초새풀, 아름다운 꽃을 가진 상록잔디페랭이, 노랑속근 코스모스, 꼬리풀 등이 관리사무소의 벽면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봄부터 가을동안 주변의 친자연적인 이미지와 잘 조화를 이루어냈다. 겨울에도 일부 상록을 유지할 수 있게 식물 선정 및 배치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벽면녹화에서 가장 결핍들이 겨울철 관수가 할 수 있겠다. 일반 토양에서는 특별히 관수가 필요 없지만 벽면이나 인공지반에서는 겨울철 관수가 되지 않음시 식물이 건조될 동해로 고사할 확률이 높다.

겨울에도 최소 7일~10일에 한번은 관수를 해주어야 고사하지 않는다. 우리꽃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낸 것은 관의 물을 전부 빼 주는 것이다. 관수 후에는 관의 물을 전부 빼내 결빙으로 인한 관수관의 파손 및 점적 구멍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체크밸브를 달아 해결하였다. 관수



호스의 가장 아래 쪽에 체크밸브를 달아주어 관수시 압력이 있으면 밸브를 닫았다가 압력이 사라지면 밸브가 열려 관내의 물을 외부로 빼주는 것이다. 그리고 빠른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벽화수에 보완한것이 있는데 벽화수를 틀에 고정 시기 전 뒷면에 보온재를 붙이는 것이다. 벽화수를 벽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벽면에 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벽화수를 붙인다. 이 경우 벽면과 벽화수 사이에 공간이 생겨 더 빨리 벽화수가 마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뒷면에 보온재를 붙여 벽화수와 밀착시켜 주는 것이다. 이 보온재는 마르는 것 외에 또 한가지 역할을 하는데 바로 관수시 남는 물을 아래쪽으로 빼주는 역할이다. 벽화수 시공시 아래쪽에 물받이를 설치하여 한곳으로 물을 모으는데 벽화수 뒤쪽으로 넘겨서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물을 처리가 쉽기 때문에 이 보온재를 이용 물받이로 유도하는 것이다.

벽화수는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수직정원을 가능하게하고 기능적으로도 에너지 효율면에서 많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수시스템을 통해서 식물의 생육이 안정되어 영속적인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시켜준다. ☺

# 신소재 관목소개

앞으로 경관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관목은 매우 중요한 소재이다. 이러한 점에서 2009년부터 2년간 관찰적, 기능적으로 뛰어난 관목들을 이 코너를 통해서 소개하였다. 그동안 소개하였던 관목들을 다시한번 요약하여 한자리에 모아 여러분에게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목소재를 찾아 여러분에게 안내할 것이다. -편집자-

## 조팝류

조팝류는 철쭉과 화양목 등이 주를 이루는 소관목 시장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등장하여 군식하거나 라인식재, 문양식재, 돌사이 채움목으로 더할나위 없이 좋은 소재이며 품종에 따라서는 포인트 식물로도 제격이다. 심한 음지만 아니면 생육이 좋아 적용범위가 넓고 척박한 토양에서 뿐만 아니라 습기가 어느정도 있는 곳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란다.



## 인동덩굴

인동덩굴은 펜스녹화 또는 아치 등에 감아올려 경계용 생울타리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덩굴식물이다. 줄기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6-7월경에 향이 좋은꽃을 피는데 꽃은 처음 흰색으로 피었다가 차츰 금색으로 변해 "금은화"라고도 불린다. 반상록성 관목으로 글자 그대로 좁고 긴 겨울을 참고 견딘 다음 봄에서 인동덩굴이라고 불리어 진다. 인동은 잎에 노랑무늬가 들어있는 무늬인동, 화려한 붉은색 꽃을 피우는 붉은인동, 주황색의 꽃을 피우는 주황인동, 고급스런 붉은 잎을 가진 적엽인동, 중부지방에서 겨울에도 완전히 상록으로 월동하는 우수한 품종 등 여러가지의 품종들이 있다. 이런 다양한 인동품종을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클레라티스

꽃이 아름다운 덩굴식물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가 클레마티스이다. 클레마티스는 검은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표현가능하며 크기도 작은 꽃부터 큰 꽃까지 다양하다. 우리꽃은 50여종을 확보하여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펜스, 파고라, 아치, 트렐리스 뿐만 아니라 지피식물로 활용, 분화용으로 활용 등 화색, 꽃의 크기 등을 고려해서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다양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대부분 5월정도에 개화가 시작되는데 일부 품종은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기도 한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 주기적인 관수와 영양공급을 해주어야 생육이 좋다. 토양은 비옥하거나 약산성에서 잘 자란다.



## 붓들레야



붓들레야는 개화기간이 6-9월로 관목성 화목류로는 장기 개화한다. 화색은 블루에서 화이트까지 다양한 꽃의 색을 가지고 있으며 1-3m까지 자란다. 생울타리용으로 적용하거나 뿌리가 튼튼하고 양지면 어느곳에서나 잘자라 사면 혹은 건물의 앞에 차폐용으로도 사용해도 좋다. 또한 야생화, 그라스와 함께 식재하거나 돌틀, 펜스나 벽의 앞에 적용해도 좋다.

## 바하브눈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이 없어도 잎의 형태만으로도 아름다운 식물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바하브눈향이다. 건조지에서도 생육이 강하며 추운 겨울에 단풍이 들지만 상록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다. 잎이 매우 조밀하게 자라 지피력이 뛰어나고 특히 블루톤의 잎은 색감이 좋아 경관적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준다. 키가 작은 지피식물과 혼재해서 식재하거나 라인식물, 석축메이저 식물로도 유리하다.

## 으름덩굴

인동류와 클레마티스와 같이 지지대를 감고 올라갈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덩굴식물이다. 원산지는 한국이며 길이는 약5m정도 자라고 꽃은 4-5월에 자주색으로 잎 거드랑이에 달려 피는데 향기도 매우 좋다. 작은 바나나모양의 열매는 익으면 세로로 갈라지는데 과육은 흰색을 띄고 식용이 가능하다. 잎이 깔끔하고 조밀한 토종의 덩굴식물로 빠르게 자라 울타리의 차폐용으로 이상적이다. 그리고 으름덩굴 한 종류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인동류와 클레마티스를 같이 반복식재하면 경관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 무늬생꽃나무

잎의 가장자리에 황금색 무늬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 관상 가치가 뛰어난 수종이다 4-5월경 잎 거드랑이쪽에서 깔때기모양으로 연한 분홍색의 꽃이 핀다. 생육이 좋아 척박지 등 어디에서도 잘 자란다. 잎의 무늬가 좋아 녹지대 등에 무리지어 군식하면 좋고 차폐용으로 열식하여도 좋다. 특히 공원이나 아파트단지내 곳곳에 관목으로 적용하면 3개월 내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 줄사철

줄사철은 상록관목성으로 양지는 물론 음지 또는 벽면 부착용, 지피식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소재이다. 기근이 있어 벽면부착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사람이 늦어 차폐 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다양한 잎색과 무늬가 있는 품종이 많아 양,음지에 지피 식물로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예로 황금색, 은색 등의 무늬줄사철 품종을 식재하고 볼록감을 주기 위해 호스타, 수국 등 음지에 잘 적응하면서 키가 있는 식물들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심으면 깔끔함과 더불어 경관적으로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줄사철류는 내한성이 강해 서울에서도 상록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단지 겨울바람 이 심한 곳에서는 단풍과 낙엽이 질 수 있으므로 바람을 막아주어야 한다.



## 산수국



산수국은 1m정도 자라고 7-8월에 흰색과 하늘색으로 개화한다. 꽃잎은 토양의 산성, 알칼리성의 농도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꽃잎부터 음지까지 모두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넓는데 특히 활엽수림대 음지하부에 군식하거나 나무주변으로 식재하면 좋다. 볼록감 있게 연출을 원할 때 하부에 아жу가, 바위취, 황금 리시마 키아 등 키가 작은 식물들을 베이스로 심고 중간중간 키 차이를 두면서 평의다리, 호스타, 원추리류 등의 식물과 함께 산수국을 식재하면 좋다. 물가 계류주변에 군식하거나 돌틀식재에도 좋다.

## 로니세라



전체적인 조형이나 잎의 질감과 색감면에서 앞으로 매우 유망한 소관목 소재이다. 내한성이 강해 원래는 겨울에 상록인 식물이나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상록성의 단풍이 들거나 낙엽이 지기도 하지만 맹아력이 좋아 새싹이 되면 밝고 윤기나는 새잎을 띄워 매우 안정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암석가드, 석축메이저 뿐만 아니라 라인이나 경계를 줄 때 라인식물로 적용하면 좋고 철쭉, 화양목 대신 가로수림 아래 심어도 효과적이다.

## 2010년 우리꽃은!



### ○○○ 우리꽃 10주년 행사

올해로 창사 1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5일 이천본사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각계각층에서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300여명 고객분들이 참석 해주셔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국립종자원장, 경희대 김영재 교수님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대표인사말과 우리꽃의 지난 10년을 영상을 통해서 되돌아보았고 정원 잔디밭에서 기념커팅식이 이어졌다. 그리고 다과와 더불어 정원 및 전시포장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경관 및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Naticulture'라는 이념을 가지고 우리꽃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 ○○○ 우리드림시리즈 해외 로열티 수출 진행



지난 5월, 일본 화훼회사인 하쿠산(J&H Japan)과 협약을 체결 하고 야생화 신품종인 "우리꿈(Coreopsis rosea URI Dream)"을 로열티를 받고 수출을 시작하였다. 로열티는 1분당 10센트를 받았고, 수출된 삼수는 현지에서 커팅묘를 생산하는 모수로써 일 년 후 일본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모든 양을 계산하여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도록 계약하였다. 또한, 미국과 네덜란드 회사들과도 추가로 시험재배 계약을 마쳐 2011년도에는 해외 로열

티 수출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발급되는 이노비즈인증은 획득하였다.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이노비즈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이 인증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중요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우리꽃 품종 농가보급 (MOU협약)



2010년 9월 30일, "우리꽃", "이천 시농업기술센터"와 이천시 "화훼 협회"간의 화훼 신품종 보급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우리꽃"에서 개발한 화훼신품종을 판매 화훼재배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이천시농업기술센터와 화훼협회(회장 정훈남)에서는 재배기술 진수 및 출하량 조절 등 우리꽃과의 협조 하에 화훼 신품종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문 업체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바람직한 상생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ISO인증 획득



묘종, 종자, 식생매트의 개발, 생산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환경경영 시스템인증(ISO 14001:2004)과 품질경영 시스템인증서(ISO9001:2008)을 획득하였다. 앞으로 보다 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환경경영과 품질경영을 통해 그린기업으로서 고객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다.

### ○○○ 본격적인 식생매트 출시

이른 봄 세종로사거리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파스텔톤의 혼합형 식생매트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열석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이 어우러져 선보이는 입체적인 경관정원으로 변모하였다. 이외에도 시공 후 바로 완성형의 화단을 조성해 주는 다양한 식생매트를 출시하여 각 현장에 적용하였고 내년에는 그라스류 등 더욱 다양하고 고급 품종 들을 식생매트로 출시할 것이다.



### ○○○ 우리꽃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대학, 연구소 및 기관과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과 연구지원이 가능 하게 되었다.

### ○○○ 전시판매장 개장

300평의 면적에 전시판매장을 마련하여 500여종의 품종을 큰 화분에 식재하여 전시,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숙근지피식물과 전시판매장 옆에 마련된 정원을 감상하고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다. 또한 전시되는 제품들은 현장에서 완성형의 화단을 원할 때 식생매트와 더불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벽화수, 최고의 수직정원 연출

벽화수는 올한해 남산1호터널, 강북재활용센터, 중앙나들이공원, 이천도로공사 등의 시공을 통해서 단순한 벽면녹화를 넘어서 디자인을 겸비한 경관적, 기능적으로 최고 의 수직정원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건물, 용벽,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되어 자연스런 경관연출이 가능하고 건물의 경우 에너지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는 장점을 겸비하고 있다. 관수시스템도 더욱 보완되어 어느해보다 추위철을 지나고 나면 다른 벽면 녹화제품들과 비교가 되어질 것이다.



### ○○○ LH공사 녹색기술실험관 시공업체로 선정

우리꽃이 개발한 벽화수, 옥상녹화용 매트 LH공사가 추진하는 보급 자리주택 녹색기술실험관의 벽면녹화와 옥상녹화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LH공사는 LH출발과 함께 공급되는 보급자리주택 에너지 성능 검증 및 제원을 통해 보급자리 녹색기술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녹색기술 적용기준을 정립하여 녹색성장정책에 부합되는 보급자리주택을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녹색기술실험관을 건립중에 있다. 녹색기술 실험관은 30% 에너지절감 녹색기술의 홍보와 주택의 성능제원, 실용기술과 미래 기술을 실험, 검증 및 발굴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내 조경에 많은 숙근지피식물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요 몇년사이 고급품종이 설계에 많이 반영되어 지고 있다. 그만큼 입주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녹화용으로서가 아니라 미적인 아름다운 경관을 원하기 때문에 고급품종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특성상 관리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생육이 간단하고 관리가 쉬운 소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숙근지피식물을 소개함으로써 현장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 아파트에 적합한 숙근지피식물

### 양지식물

#### 알케미라



연두색 원형의 잎이 조밀하게 모여서 자란다. 포기의 모양이 좋아 화단에 단독으로 식재를 하거나 수변이나 화단의 앞쪽에 열식하면 좋다. 꽃은 스프레이 형태로 노랗게 피는데 절화용으로 활용가능하다.

#### 아스타



아스타는 종류가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고 주로 보라색과 하얀색 계통으로 시원한 가을색을 연출한다. 일부 왜성 아스타종은 초여름에 1차개화를 하고 가을에 2차개화하는 장기개화형으로 혼합식재나 군식 등 어떤 형태로 적용해도 좋은 소재이다. 고성 아스타종은 키가 큰종류로 개화가 늦다. 하지만 화려한 꽃색은 물론 가을을 대표하는 종류이다.



#### 억새



억새는 그라스의 대표종이다. 많은 품종이 존재하며 특히 꽃이 피는 가을에 절경을 이루고 일부 종은 겨울에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최근에 선보이는 무늬 종은 그라스정원의 핵심 품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단독, 군식, 혼식, 혼성식재 어디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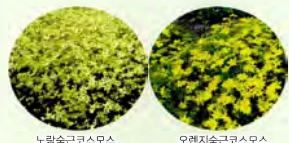


#### 종피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붉은 잎을 가지고 있고 가을로 가면서 잎은 더 붉어진다. 핵심 포인트를 주거나 군식, 열식 모두 다 잘 어울린다. 특히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적색의 잎을 가지고 있다.

#### 숙근코스모스



노랑숙근코스모스      오렌지숙근코스모스

#### 메기나



노랑메기나      메기나노도      메기나

#### 바늘용담



10월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서리가 약도 꽃을 계속 볼 수 있다. 트럼펫모양의 통꽃에 꽃은 별모양인데 양지를 좋아하고 부식토가 많은 축축한 토양을 좋아하나 반음지 혹은 일반 습윤지에서도 생육이 좋다.

#### 붓꽃



부채붓꽃      제비붓꽃      타래붓꽃      편붓꽃

붓꽃은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양지에 잘 적응하고 꽃피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혼성식재를 겸한 대군락식재가 유리하다. 부채붓꽃, 제비붓꽃은 습지에서 생육이 가능한 종으로 계류주변에 적용하면 좋다.

#### 꽃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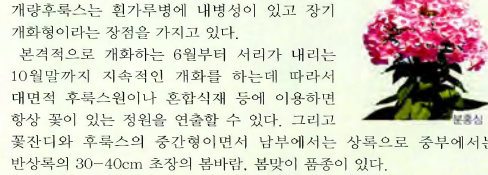


꽃잔디는 키가 10cm내의 포복메트형으로 상록성을 가지고 있으며 호냉성식물이다. 화색은 하양의 화이트, 보라색의 에메랄드, 분홍색의 꽃잔디, 빨강의 레드킹, 레드아이, 그리고 더욱 밝고 조밀한 레드천이 있다. 종류가 다양하여 혼합식재하면 더욱 화려하다.



레드아이      레드킹      에메랄드      화이트      꽃잔디

#### 후룩스



개량후룩스는 흰가루병에 내병성이 있고 장기 개화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6월부터 서리가 내리는 10월말까지 지속적인 개화를 하는데 따라서 대면적 후룩스원이나 혼합식재 등에 이용하면 항상 꽃이 있는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그리고 꽃잔디와 후룩스의 중간형이면서 남부에서는 상목으로 중부에서는 반상목의 30~40cm 초장의 불바람, 불맛이 품종이 있다.



레드루트      백설      불꽃이      불바람      오렌지      자연      파라다이스      미들스타

#### 꼬리풀



꽃은 촛불형으로 1차 개화 후 꽃이 질 무렵 커밋을 해주면 가을에 다시 꽃을 볼 수 있다. 양지를 좋아 하지만 약간의 내음성이 있어 반음지에서도 문제없이 자라며 생육이 강건하여 어디나 잘 적응 한다. 꽃대가 많아 넓은 면적에 군식을 하면 좋다.



꼬리풀 핑크      꼬리풀 로즈      꼬리풀 리틀블루      꼬리풀 블루      꼬리풀 이브

#### 설유카 브라이드에이지



상록성이며 생육이 빠르고 촉촉하고 물빠짐이 좋은 토양이 좋다. 무늬가 좋아 포인트식물로 활용하거나 열식하면 좋다.

#### 숙근사쿠비아

봄 5월 다른 꽃이 별로 없을 때 이 시기에 꽃을 보기를 원한다면 대면적으로 군식하거나 혼합식제 앞쪽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1차 개화 후 커밋을 해 주면 2차 개화를 빨리 유도할 수 있다. 잎에는 향기가 있어 허브식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독식재 혹은 혼합식제시 좋은 소재로 이용될 수 있다.



레드오시      마르카스      비올라      화이트

#### 우디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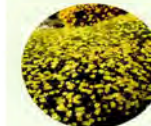
그라스중 빨리 개화하는 종으로 봄에는 잎의 무늬가 가을에는 마른 잎이 아름답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고 양지 혹은 반음지에 좋다.

#### 올리니아



치밀한 포기를 이루는 대표적인 선의 식물이다. 대체로 약간의 축축한 토양을 좋아하고 습기를 좋아한다.

#### 애기노랑금계국



일반 금계국에 비해 장기개화되고 노랑색의 색감이 매우 고급스럽고 초형 또한 아담한 수종

### 새 블루마운틴

브론즈색의 꽃이 아름답고 약간의 축축한 습을 좋아한다. 활엽수 가장자리 등의 반음지 또는 아파트 등의 약간 습하고 반그늘진 곳에 심으면 최상이다.



### 아이스댄스

잎의 초형이 단아하고 난형태로 퍼져있는 형태를 이룬다. 잎은 두껍고 녹색바탕에 바깥쪽으로 줄무늬가 들어 있으며 잎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다. 열식 혹은 근식해도 좋고 특히 포인트식물로 좋다.



### 사사

양음지 모두에 좋은 피복식물로 특히 소나무아래 혹은 음지 피복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무늬종을 적절히 혼합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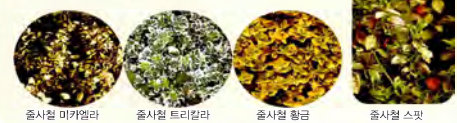
### 대사초

대사초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에도 강하여 소나무 정원의 건조지에도 좋다. 건조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나무아래, 건물주변 등의 음지에서 잘 적응한다. 다양한 무늬종 대사초류를 잘 어울려 심으면 아름다운 색감연출이 가능하다.



### 줄사철

양지에서 음지까지 모두 잘 자라며 약간의 물기가 있는 토양은 물론 메탈라도 낙엽 잎이 많이 쌓이는 곳이면 생육이 좋다. 다양한 잎색과 무늬가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 맥문동

상록성으로 음, 양지를 가리지 않는 전천후 식물로 잎과 꽃이 좋은 식물이다.



### 수초초

음지용 상록성 지피식물로 활엽수아래 혹은 건물 음지 지피용으로 좋다. 무늬종을 이용하면 다양한 색을 연출할 수 있다.



### 옥잠

음지조경의 대표종으로 생육이 강건하고 재배가 용이하며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무엇보다 크기와 모양, 질감과 색상 등이 매우 다양하고 잎의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토질을 가리지 않으나 축축한 부식질토양에서 가장 잘 자란다. 아파트 정원 수목아래 군락을 조성하거나 아파트내 소계류 주변에 적용하면 좋다.



### 원추리

다양한 품종이 있고 화색이 다양한 고급정원의 연출에 유용하다. 약간의 습기가 있는 장소에 적용하면 좋고 아파트내 낙엽수림의 반음지에 식재하면 좋다. 생육이 강건해 어떤 지역에서도 잘 적응한다. 스텝라원추리는 장기간화형의 키작은 원추리로 양지뿐만 아니라 반음지, 습지 등에 적용가능하다.



### 아주까

반음지의 빠른 피복식물로 활엽수 음지에 효과적이고 보라색의 불꽃은 최상이다. 왕아주가 잎은 적갈색을 띄며 일반 아주가에 비해 크기가 크고 광택이 난다. 애기아주가는 잎이 작고 매우 조밀한 분화용으로 매우 좋은 소재이다.

### 우의동굴레

소나무 등의 침엽수림하에서라도 약간의 햇빛과 습도만 유지되면 생육이 양호하다. 아파트내 나무줄 가장자리에 길게 군식하면 좋은 집합의 연출이 가능하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

### 클레아리스



품종에 따라서 화색, 크기, 성장속도, 향기까지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은 덩굴성 식물이다. 물빠짐이 좋은 아주 비옥한 토양에 심어 새로움을 연출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덩굴식물이다.

### 인동



대표적인 덩굴성 식물로 생장이 빠르며 펜스나 트렐리스를 이용하여 생육을 유도하면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 눈꽃은썬레



생육속도가 빨라 생육조건이 좋으면 1년에 10m까지 자란다. 가지가 아래로 뻗으면서 자라 빨간색의 폭포를 연상시키는 꽃이 5-6월에 핀다. 웅변, 암사면, 절개지, 울타리 녹화용으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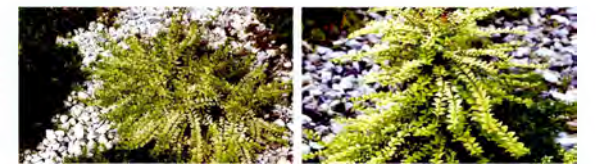
꽃을 좋아하는 식물

### 조팝나무



### 로니세라

로니세라는 관목형 식물로 녹색과 황금색 그리고 금테무늬종이 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양지, 반음지에 적용이 가능하다. 라인식재 또는 철축대용으로 군식해도 좋다.



### 붓꽃 레아

꼬리처럼 길게 피는 꽃은 이색적이며 요즘의 아파트 형태에 매우 좋은 관목이다. 화색이 다양하고 대형의 포기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 묘종, 종자 전문회사 우리꽃은 양질의 묘종 및 종자를 대량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꽃은 10만평의 중국 현지생산기지에서 직접 종자를 생산합니다.  
우리꽃은 6만평의 국내 생산기지에서 직접 숙근지피식물을 대량생산하고 있습니다.

## 4대강용 종자



▶ 갈대



▶ 과꽃



▶ 도라지



▶ 범부채



▶ 마타리



▶ 물억새



▶ 철경이



▶ 산국



▶ 수크령



▶ 싹부쟁이



▶ 타래꽃



▶ 배비꽃



▶ 배롱이



▶ 황금



▶ 처녀

우리꽃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묘종 및 종자를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4대강도 문제없습니다.

구입문의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상담전화 : 031)712-7001, 7119 / Fax. 031)712-7991